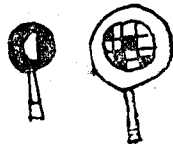


畜産振興에 力점을



金 文 植

(서울農大교수)

世界的으로 食糧事情이 가장 窮塞했던 73년도 이제 저문다.
 언제나 食糧은 生産過剩狀態에서 穀價는 沈滯하기 마련이라는 豫想은 언제나 드러맞는 것 같지는 않다.
 올해 食糧은 需要를 따르지 못하여 國際的穀價時勢는 대체로 100%를 上廻하는 暴騰勢를 보였다.

지난날 國際商品으로서 人氣없던 穀類를 비롯한 諸食品이 이제는 人氣品目이 되었으며 지난 2년 동안에 豊富한 農産物生産國家인 「캐나다」를 비롯한 「오스트렐리아」, 「아르헨티나」, 「미국」등은 農産物輸出을 통해 國際收支上에 커다란 利得을 보았던 터이다.

이에 재미를 본 先進農業諸國家는 지난날의 工業偏重의 政策을 是正하여 앞으로는 農業의 開發에 적극 힘을 기울일 方針을 세우게끔 各國의 農業政策은 새로운 局面에 접어 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앞으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食糧 對 人口와의 關係를 본다면 현재 그대로 食糧과 人口가 증가할때 食糧과 人口와의 均衡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리라는 전망인 때문이다.

人口와 食糧

勿論 人口와 食糧문제에 局限해서 볼때 아직껏 悲觀이나 樂觀의 어느 하나의 定說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편으로는 人口增加가 食糧增産을 上廻함으로써 25년마다 커다란 戰爭이 發生하던가 疾病의 蔓延으로 많은 人口의 損失이 없이는 人口와 食糧이 調和를 이룰 수 없다는 悲觀論 (T. malthus)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人口가 食糧보다 높은 比率로 증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地球上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天然力이 방치되어 있어 그것을 이용하면 현재 살고 있는 人口의 10배 또는 100배의 인간이 부양될 수 있다는 樂觀

論(F. List)이 팽팽이 맞서 왔었고 아직까지는 어느 주장이 옳은지 實證되어지질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보는 人口問題專門家들의 綜合된 見解 즉 「로마클럽」의 한 研究에 의하면 이 地球에는 每日 약 21만 명의 人間이 증가하고 있으며 1년간에는 7천여만명에 달하고 人口의 膨脹이 이대로 進行된다면 西紀 2000년에 접어 들자마자 世界人口는 70억에 達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1972년 현재 世界人口는 38억에 肉薄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음으로 나머지 28년 間에 世界人口는 약 32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勿論 世界人口의 增加率이 食糧生産趨勢를 上廻할것 같지는 않으나 國民소득의 增加에 따르는 食糧에 대한 需要增加率에다 人口增加에 따르는 食糧需要增加率까지를 堪案 考慮한다면 食糧의 生産增加率이 需要增加率과 같던가 그것을 上廻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다만 需要增大의 二 要因이 되는 所得增加率과 人口增加率에 있어서는 所得增加率이 人口增加率보다 크다.

먼저 人口와 食糧과의 關係를 보기 위하여 1961~63년부터 1969~71년까지의 發展途上國家들의 年間人口增加率과 農業成長率과를 對比시켜 볼 때 대체로 農業成長率이 人口成長率과 동등하던가 그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農業成長率은 人口와 所得의 二 要因의 變化에서 오는 食糧需要의 增加率에는 대체로 미치지질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開發途上國家들의 人口增加率은 지난 10년간 대체로 2.5%내지 2.9%라는 增加率을 보인데 대하여 農業은 그에 비슷한 2.6%내지 2.9%의 增産率을 보임으로서 所得增加에서 오는 食糧需要增加를 카바할만한 增産이 따르

지 못한 셈이 된다.

食糧需要의 增加率을 充足시키기 위한 農業의 必要成長率은 世界의 地域別로 다르지만 極東地域의 경우 앞으로 10年間 年間平均 4%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需要에 對比한 生産不足의 隔差가 크면 클수록 食糧價格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며 을 73년이야 말로 그 隔差가 가장 幅넓게 벌어져진 해로서 穀類의 國際時勢는 大幅의 上昇勢를 보이였다.

1971년에 쌀 國際時勢가 民間去來「메이스」로 相當 美弗로 130弗 내지 200弗하던 것이 1973年 中間에는 350\$내지 400\$로 약 100%의 上昇勢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옥수수와 小麥은 1972年 7월부터 翌年 7월까지에 年間 各 各 136%의 上昇勢를 보이였다.

따라서 이제는 外穀을 導入하자면 外貨需要는 약 2倍로 增額되다 싶이 했으며 지난날 借款條로 드러올 수 있었던 穀類輸入이 이제는 現金을 支拂해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어 外穀의 導入條件은 크게 不利해짐으로서 우리의 國產穀類로서 食糧自給을 達成해야만 할 必要性은 더욱 切實한 것으로 되였다.

그러면 다음으로 外穀에 依存하지 않는 食糧自給體制를 갖추기 위해 얼마만큼의 增産이 必要한가가 우리의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勿論 이에 대하여는 計算根據가 다름에 따라 或은 보는 立場이 다름에 따라 意見이 區區하여 一致된 意見이 없다. 다만 여러 가지 意見を 종합해 보면 대체로 樂觀論과 悲觀論으로 나누어 진다.

대체로 悲觀的인 展望을 하는 側은 過去의 外穀導入量의 增加趨勢를 매우 重視하는데 대하여 樂觀的인 見解를 表明하는 側은 糧政을 맡고 있는 農水産部의 行政當局이나 農民들로부터 자주 듣게 된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政府가 어떠한 食糧增產政策을 펴 나가며 農民의 增產할 資源條件上 어떠한 變化가 오느냐에 따라서 머지 않아 食糧은 自給될 수도 있고 혹은 遼遠해질 수도 있어 그같은 悲觀的, 혹은 樂觀的 見解가 있을 수 있듯이 正確하게 自給達成年度를 짐치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政府의 主穀自給策

政府는 최근 제 3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끝나는 1976년에 가서 쌀, 보리, 콩, 등의 主穀의 栽培面積을 擴大하고 單位面積當收穫量을 늘려 1976년까지에 不足豫想量 主穀 5백 46만 6천섬을 自給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한 바 있다.

그 計劃의 細部計劃中 主要한 것만을 본다면 첫째 1976년까지 不足하게 될 쌀 2백 22만 9천섬을 비롯하여 보리 2백 98만 5천섬, 콩 25만 2천섬은 國內生産으로서 確保하겠다는 것과 둘째 보리 增產을 위해 早生品種인 을보리의 栽培面積을 29만정고 擴大하는 것을 비롯하여 野山開發과 集團栽培 및 肥培管理法의 改善等으로서 不足麥類全量을 增產으로서 確保하고 셋째 消費側面에서 酒類 및 製菓用原料를 國內麥類로서 外産小麥에 代替하고 넷째 밀가루加工收率을 現在 77%에서 80%까지 引上하는 등 措置를 取하여 外産麥類의 依存度를 낮춘다는 등의 內容으로 꾸며져 있다.

이 76년까지의 增產計劃을 增產率로 換算하면 그 총규모에 있어서 年間必要成長率은 4%이고 쌀의 경우 段階當 3백 29kg에서 3백 70kg로 올리려는 計劃은 年間平均 3.8%의 增產率을 의미하고 있어 이러한 4%程度의 年間增產率이란 우선 그다지 達成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判斷을 하게 된다.

더욱이나 現在 우리가 食糧을 自給할 수 있

는 段階에는 未達해 있을지라도 그동안의 年間平均的增產率이 決코 낮은 것은 아니었고 平均的으로 年間 4%에 接近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物量計劃上 無理는 없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다만 食糧自給의 문제를 長期的眼目에서 볼 때 主穀이 自給됨으로서 廣義의 食糧 즉 食品의 自給이 이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點에 문제점은 계속 남게 된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즉 所得增加에 따라 需要가 敏感하게 붙어 나가는 이른바 所得彈力性이 큰 食品인 肉類를 비롯한 牛乳, 기름類, 鷄卵類의 食品不足이 날이 갈수록 더욱 激化해질 것이며 그 中에서도 肉類에 있어서는 1976년에 가서 약 55만톤의 不足이 豫想되고 있는 現實이기도 하다.

畜産의 振興

따라서 食糧自給이라면 現在의 食生活慣習에 비추어 보아 우선 主穀의 自給이 優先되어져야 하겠으나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 때 高級 단백질含有量이 많은 食品의 需給의 均衡문제를 빠트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畜産문제는 動物性食品이라는 點에서 增產方案은 植物性食品인 穀物과는 技術上 또 는 經濟上 差異가 있기 마련인데다가 畜産에는 大, 中, 小, 家禽類등으로 分類되어지는 때문에 각 部門別로 가지는 문제성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다만 畜産全般에 걸치는 문제로서 最少限 다음의 몇가지는 解決되어져야만 할것 같다. 즉 採算性을 保障할 ① 畜産物의 價格條件을 비롯하여 ② 圓滑하고도 適正價의 飼料供給 ③ 生産 및 流通資金의 貸與 및 償還條件의 改善, ④ 生産 및 經營技術의 向上을 위한 研

究와 指導의 強化 등이 解決 또는 講究되어져야 할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구태어 部門別로 解決되어져야 할 몇가지 主要문제점을 들추어 본다면 먼저 大家畜의 경우 現在 收益率이 낮은 家畜繁殖에 증사하고 있는 業體나 業者에 대한 融資 및 獎勵金支給 등의 特惠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採算성이 保障되지 않는 狀況下에서 家畜의 繁殖이 鈍化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條件下에서 家畜增産은 增進되어질 수 없는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山地의 牧草造成을 積極化하기 위한 山主와 利用者間의 關係改善, 適正飼育頭數를 찾기 위한 研究와 指導 및 家畜(韓牛의 경우) 내지 畜産物(乳類내지 加工品)의 適正價의 維持對策(畜産物基金安定基金의 設置) 등이 아울러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中家畜의 代表格인 돼지의 경우에는 飼料문제보다는 生豚販賣價水準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돼지는 쌀겨, 보리겨는 물론 落果, เศษ, 飲食店의 殘飯 등 무엇이든 잘 먹는 家畜인 때문에 그 販賣價格條件만 養豚家에게 有利하다면 畜産一般에서 갖게 되는 몇가지 문제점 以外에 特有한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다.

畜産에서 가장 飼料難을 겪고 있는 것은 養鷄部門일 것이다. 外國으로 부터 導入하는 飼料의 大部分이 養鷄飼料用이며 어느 程度 飼料의 自給率을 높혀 生産의 安定化를 期해야 한다는 危急한 문제성을 안고 있는 때문이다.

거기에 肉鷄의 價格波動은 가장 큰 起伏을 보이고 있어 그 系統出荷와 備蓄制, 그리고 그에 의한 販賣窓口的 一元化를 통한 價格安定 등이 강구되어져야 하겠다.

우선은 年間 不足이 없을만큼 豊富한 飼料의 在庫를 確保해야 하겠으나 앞으로는 飼料의 自給率을 높이기 위한 옥수수의 優良品種

의 開發과 普及 및 契約栽培法의 導入, 主産圃地의 造成 등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外國의 輸出禁止 乃至 制限措處에 當황하지 않을 飼料生産體制를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企業畜産에 있어서 畜産物의 價格安定이 先行되어져야 하는만큼 養畜業界에서는 相互協助를 통한 生産安定基金을 造成하여 自體的으로 生産과 價格을 安定시킬 實力을 培養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

意外로 畜産의 發展에 관한 論議가 길어진 느낌이나 長期的眼目에서 食糧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肉類를 비롯한 牛乳, 乳加工品 및 卵類 등 畜産物에 대한 需要와 供給의 문제가 必然코 重要한 문제로서 提起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본 때문이다.

다시 主穀生産의 문제에 되돌아가서 그 自體의 難易度를 살펴 보는데 있어서 樂觀的인 見解를 펴는 農民側의 主張에 一旦 귀를 기울여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主穀의 增産要因

秋穀의 收穫直後 米穀의 盛出廻期라서 그러 한지는 모르나 農民들은 穀價의 適正化를 第一義的인 增産誘因으로 보고 쌀값만 適正化시켜준다면 農民은 增産에 熱中하게 되고 또한 販賣率을 높이는 한편 보리增産으로서 不足食糧을 補充하려 努力하는 때문에 主穀인 米麥의 增産과 自給은 政府에서 穀價만 適正化해 준다면 決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樂觀論이야말로 가장 믿을만한 客觀性의 一面을 갖고 있다. 하지만 有利한 米麥價支持라는 條件이 增産에 영향력이 큰 必要條件이 될 수 있을 망정 그것이 食糧자급의 충분한 조건이 될수는 없다.

이들때면 全體食糧의 增産에 가장 影響力이 큰 것은 耕地의 擴張이지만 開拓이나 大規模 개간등은 個別農家의 力量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分野이고 現在 農村에 不足을 느껴 그 값이 뛰고 있는 肥料供給의 圓滑化도 農民의 힘이 미칠 수 없는 分野에 속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短期的으로 主穀增産에 있어 가장 影響力이 큰 要素는 耕地의 擴張이며 다음이 肥料 그 다음이 農藥, 肥效 큰 優良벼品種 등이 順位로 되어 있다.

大農機械의 增收效果는 아직 正確한 檢討도 없었거니와 우리 農村에서 利用하는 農家數가 너무 적은데다가 그 非效率的인 利用으로 短期的인 觀點에서의 效果는 微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잘게 쪼갤 農村勞動力에서 오는 減産을 카마할 수 있게 되자면 우리 農業에 適合한 農機械의 開發과 빠른 普及이 必要할 것 같다. 요즘 高리播種面積의 擴大의 制約性이 벼收穫과 겹치는 勞動力不足에서 온다는 點에 비추어 보더라도 適格의 農機械의 開發과 普及이 얼마나 아쉬운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밖에 直接的인 生産要素는 아니나 重要한 增産誘因이 되며 政府에서 계속적인 配慮


를 해야 할 것은 農民들이 熱望하는 穀價의 適正化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農業이나 農村의 문제를 食糧의 문제 특히 主穀의 增産문제로 좁힌다면 그 增産對策이란 우리가 平素에 잘 알고 있는 범주의 종류를 비서날 수 없다.

最近에 都市化, 産業化, 高速道路化로 줄어드는 耕地를 補充할 干拓, 開墾事業을 비롯한 水利施設의 擴充, 段當收量을 높이기 위한 優良品種의 開發과 多肥多藥, 農業의 機械化 내지 科學化, 土地利用率의 提高 및 主穀에 대한 政府의 價格支持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食糧增産문제는 이러한 諸要素나 誘因을 알고 모르는데 있지 않고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는데 政府가 얼마나 誠意와 物的支援으로서 臨하느냐 하는 것과 農民이 얼마나 지혜롭게 주어진 資源을 效率적으로 活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 결국 樂觀的인 展望이 悲觀的인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고 或은 悲觀的인 展望이 樂觀的인 結果로 끝날 수 있는 것도 增産에 임하는 우리의 姿勢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다.

우리는 오늘의 世界的인 食糧危機에 直面하여 새로운 覺悟로서 食糧增産과 自給에 臨하여야 할 것이다.

<p>企業의 社會的責任</p> <p>오늘날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企業의 社會的 責任論議가 粉粉하다.</p> <p>최근 日經連이 日本의 企業 經營者 300人을 對象으로 調査한 企業의 社會的 責任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 <p>□ 貴下의 立場에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項目중 어느것으로 생각 합니까?</p>	<p>▲ 地域社會와의 共存共榮 38·6%</p> <p>▲ 公害防止·環境改善 25·</p> <hr/>  <hr/> <p>9%</p> <p>▲ 企業倫理의 確立 14·2%</p> <p>▲ 適正利潤의 確保 7·1%</p>	<p>▲ 從業員의 待遇改善 6·3%</p> <p>▲ 株主에의 奉仕 4·7%</p> <p>▲ 인플레이抑制 1·6%</p> <p>▲ 會社施設의 開放 1·6%</p> <p>□ 貴下의 會社가 地域社會와의 關係改善을 위해 取하고 있는 方法은?</p> <p>▲ 寄附等 資金面에서의 協力 23·8%</p> <p>▲ 地域住民과의 懇談會 17·6%</p> <p>▲ 工場見學 16·0%</p> <p>▲ 綠化運動 14·4%</p> <p>▲ 會社施設의 開放 13·8%</p>
--	--	---